

‘선발 변신 합격’...KIA 마운드 한승혁 효과 예고

4년만에 선발 등판 5%이닝 탈삼진 4개 3실점 무난

KIA 마운드에 한승혁 효과가 나타날 조짐이 보인다. 한승혁은 지난 10일 한화와의 대전 경기에 4년 만에 선발등판했다. 6이닝을 소화하지 못했지만 5%이닝 동안 4개의 탈삼진을 곁들여 6피안타 2볼넷 3실점으로 무난한 투구를 했다. 외국인 타자 호임에게 맞은 두 개의 홈런이 실점으로 연결됐다. 호임의 홈런을 제외하면 선발투수로는 손색이 없는 투구였다. 빠른 볼을 주축으로 적극적인 승부를 펼쳤다. 볼이 크게 빛나가는 경우도 거의 없을 만큼 제구력도 안정감이 있었다. 새로 배웠다는 커브와 스플리터를 적절히 섞는 안팎투구로 타자들을 상대했다. 투구수도 89개로 적당했다. 얼굴도 긴장감이 덜해보였다. 한 점차에 등판하는 볼펜에 부담을 느껴왔던 한승혁이 아니었다. 김기태 감독도 경기전 “5이닝만 던져주어도 좋겠

다”고 말했지만 그 이상을 베풀어주어 만족했다. 선발투수로 가능성을 보인 등판이었다. 다음 예정된 등판은 17일 광주 롯데전이다. 다만, 나흘 등판 간격을 적용할 지는 미지수이다. 한승혁의 선발진 가세로 KIA의 선발진이 풍부해졌다. 한승혁은 다음 경기 결과가 중요하지만 한 자리를 차지한 모양새이다. 임기영은 오는 20일께 전후로 복귀하면 선발진은 확연히 강해진다. 이미 퓨처스리그 실전에 출전해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임기영이 돌아올때까지는 정용운과 이민우가 선발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선발진이 많아지면서 연쇄적으로 볼펜진도 강화되는 효과까지 예상된다. 선발등판하지 않으면 1+1 톱타로 대기하거나 미들맨으로 이닝을 소화할 수도 있다. 임기영이 복귀하면 이민우와 정용운은 중간에서

허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물론 향후에도 선발진에서 예기치 않은 공백이

생기면 즉시 투입할 수 있다. 여기에 실전에 나선 좌완 심동섭까지 복귀하면 전체 볼펜진의 힘이 커진다. 한승혁에 이어 임기영, 심동섭까지 돌아오면 KIA 마운드는 완전체가 된다. 이제는 1군 엔트리를 놓고 투수들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는 효과도 예상된다. 김기태 감독에게는 싫지 않은 구도이다. 김기태 감독은 “스프링캠프때 선발투수 경쟁이라고 말하지 지금은 경쟁하기 보다는 활용 인원이 많아졌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승혁의 가세로 마운드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봄 따라 달린다”

15일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

제13회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가 오는 15일 탐진강변 체육공원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 대회에는 2,123명이 사전 참가신청을 마쳤다. 코스별로는 풀코스 111명, 하프코스 359명, 단축코스 492명, 건강코스 1,161명의 전국의 마라톤인들이 참가를 신청했다. 장흥군은 행사 당일 협상신청과 지역 사회단체의 추가 신청을 더할 경우 참가인원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매년 2월에 개최하던 정남진 장흥 마라톤대회를 가족 전열병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4월로 일정을 조정했다. 탐진강변에서 시작하는 각 코스는 풀코스, 하프코스, 단축코스(10km), 건강코스(5km) 등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풀코스는 부산면 교차로를 경유하여 유치면 소재지를 지나 관동마을에서 반환하고 하프코스는 지천터널 100m 지점에서 반환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단축코스과 건강코스는 각각 부산면 교차로와 부산교 앞을 돌아 제방길을 따라 돌아온다. 주최 측은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장흥교에서 유치면에 이르는 마라톤코스 전구간의 차량을 통제할 계획이다.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과 국수, 두부, 막걸리 등 푸짐한 향토음식이 제공되고, 장흥한우와 돼지고기, 오리고기 시식회도 마련했다. 행사장 내에는 혈압과 기초체력을 체크할 수 있는 이동 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운동 전후 회복을 돕기 위한 필리핀 마사지 코너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경품과 행운권 추첨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나누어주는 이벤트와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에 참가하면 탐진강과 장흥읍의 아름다운 코스를 따라 활기찬 봄길 레이스를 즐길 수 있다”며, “전국의 많은 마라톤 관계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흥필 기자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과 국수, 두부, 막걸리 등 푸짐한 향토음식이 제공되고, 장흥한우와 돼지고기, 오리고기 시식회도 마련했다.

행사장 내에는 혈압과 기초체력을 체크할 수 있는 이동 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운동 전후 회복을 돕기 위한 필리핀 마사지 코너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경품과 행운권 추첨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나누어주는 이벤트와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에 참가하면 탐진강과 장흥읍의 아름다운 코스를 따라 활기찬 봄길 레이스를 즐길 수 있다”며, “전국의 많은 마라톤 관계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흥필 기자

두산 양의지 300만원 벌금

80시간 유소년 봉사 징계

KBO “고의성 떠나 있어서 안 될 상황”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양의지(31·두산)에게 징계를 내렸다.

KBO는 12일 도곡동 KBO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양의지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그결과 양의지에게 300만원 벌금과 80시간의 유소년 봉사 징계를 내렸다.

양의지는 지난 10일 대구 삼성전에서 7회초 스트라이크 판정에 볼만을 보였었다. 이어 7회말 두산이 투수를 세스 후랭코프에서 꺾기로 교체했고 꺾핀은 양의지와 연습 투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양의지는 낮게 날아온 공을 잡지 않고 피했고 뒤에 있던 구심이 맞을 뻔한 일이 일어났다. 두산 김태형 감독이 곧바로 양의지를 불러 질책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경기 종료 후 양의지와 김태형 감독은 고의성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당시 경기감독관이었던 김용희 감독관을 비롯한 심판진은 양의지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다고 판단해 경위서를 제출, 결국 상벌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KBO는 12일 상벌위에서 양의지의 징계를 논의 발표했다. KBO는 “상벌위원회 회의 결과 1차 결론을 벌금 300만원에 80시간 유소년 봉사사를 내릴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후 2차적으로 추가 논의를 했고, 변화를 두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 진출 태극전사들, ‘두둑한 포상금’

손흥민은 8000만원

9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에 기여한 선수들이 두둑한 포상금을 손에 쥐었다.

11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소화한 선수 41명은 총 24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최종예선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대표팀에 소집된 선수들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해 각

각 8000만원, 6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손흥민(토트넘) 등 본선행에 혁혁한 공을 세운 주전급 선수들은 8000만원을 수령했다.

신태용 감독을 포함한 코칭 스태프에게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맞춰 포상금이 돌아갔다.

대한축구협회는 2014 브라질월드컵 때도 기여도에 따라 선수들을 A~D등급으로 구분해 보너스를 수여했다.

류현진, 5선발 설움·불펜행 위기 첫승으로 잠재워

지난해 새롭게 장착한 커터 결정구로 삼진 퍼레이드



류현진(31·LA 다저스)이 일정치 않은 등판 일정에도 믿음직스러운 투구로 불펜행 가능성마저 잠재웠다. 류현진은 11일(한국시간)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 피안타 1볼넷 8탈삼진 무실점하며 팀의 4-0 승리를 이끌고 시즌 첫 승을 거뒀다. 올 시즌 첫 출전한 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에서 류현진은 3%이닝 5피안타 5볼넷 2탈삼진 3실점으로 부진했다. 이날 두 번째 등판까지 1주 넘게 대기했다. 이등인과 우천 취소로 인해 휴식일이 생기면

서 선발 로테이션에 변화가 있었다. 다저스는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판 일정을 조정했다. 5선발인 류현진은 등판 일정이 뒤로 밀리고 밀려 무려 8일 만에 마운드에 설 수 있었다.

일정치 않은 등판 일정에도 류현진은 개의치 않았다. 데뷔 후 처음 상대하는 오클랜드를 맞아 1회 삼진 2개를 빼앗는 등 패부를 펼쳤다.

5회 2사 후 첫 안타를 맞을 때까지 볼넷 1개만을 내주며 노히트 노런 투구를 했다. 6이닝 가운데 4이닝을 삼자범퇴로 끝냈다. 한 경기 탈삼진 8개는 지난해 8월7일 뉴욕 메츠전 이후 10경기 만이다.

직구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 커터 등 다양한 구종을 적절히 섞어 던지며 오클랜드 타자들을 압도했다. 지난해 새롭게 장착한 커터를 결정구로 삼진 퍼레이드를 벌였다.

이날 류현진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면 향후 불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지난 시즌에도 조금만 부진해도 선발 제외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다저스는 투수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선발 지원이 차고 넘친다. 마이너리그에는 선발 유망주가 언제든지 풀업을 기다리고 있다.

그때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달리 다저스의 시즌 출발이 좋지 않으면서 로테이션 변화를 통한 분위기 전환을 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도 류현진은 시즌 초 찾아온 위기를 오로지 실력으로 극복했다. 타자들도 모처럼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3승 6패로 꽤 격대던 다저스는 류현진의 호투로 2연승을 달렸다. 류현진과 다저스 모두에게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경기였다.

뉴스스

허버 평균자책점은 3.00에서 3.00으로 낮았다. 투구수 22개 중 스트라이크는 15개였다.

9일 텍사스와 경기에서 ⅓이닝만을 소화했던 오승환은 팀이 3-5로 끌려가던 7회말 팀의 네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뉴스스

뉴욕 양키스, 구단 가치 4조2600억원

양키스, 구단 가치 4조2600억원...21년 연속 MLB 최고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구단은 뉴욕 양키스로 확인됐다. 21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2일(한국시간) 양키스의 구단 가치는 지난해보다 8% 상승한 40억 달러(4조2600억원)로 집계했다고 발표했다.

양키스는 1973년 조지 스타인브래너 구단주가 880만 달러에 팀을 매입한 이래 매년 15%씩 구단 가치가 상승했다.

2위는 류현진이 뛰고 있는 LA 다저스로 9% 상승한 30억 달러(3조2000억원)다. 3위는 시카고 컵스(29억 달러·3조940억원), 4위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28억5000만 달러·3조407억원), 5위는 보스턴 레드삭스(28억 달러·3조원)다.

지난 시즌 월드시리즈 우승팀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16억5000만 달러(1조7500억원)로 11위다. 추신수의 소속팀 텍사스 레인저스는 16억 달러(1조7000억원)로 13위에 위

치했다. 구단 가치가 가장 낮은 탬파베이 레이스는 9억 달러(9800억원)로 1위 양키스의 4분1 수준에도 못 미쳤다.

구단별 순수익에서도 양키스는 지난해 6억1900만 달러(6600억원)로 2위 다저스(5억2200만 달러·5560억원), 3위 컵스(4억5700만 달러·4870억원)를 제치고 1위를 했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의 평균 가치는 전년도 대비 7% 상승한 16억4500만 달러(1조7500억원)로 평가됐다.

포브스는 구단 가치와 순수익을 기준으로 구단을 4개의 그룹으로 분류했다.

1그룹에는 양키스만이 이름을 올렸다. 양키스는 다른 팀보다 20% 이상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 독보적이다.

2그룹은 다저스와 컵스,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 대도시를 연고하면서도 시장을 초월하는 브랜드 파워를 갖춘 구단이다.

3그룹은 6위 뉴욕 메츠부터 16위 로톤도 블루제이스까지 이름을 올렸다. 시장 규모나 낮은 야구장, 경기력 등의 문제가 있지만 이를 해결하면 2위 그룹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17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부터 최하위 탬파베이는 4그룹으로 이들 구단은 시장이 작고 관리가 부실해 2그룹으로 올라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오승환, 1이닝 2피안타 2K 무실점...평균자책점 3.00

오승환(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3일 만에 등판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마쳤다. 오승환은 12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오리올 파크

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원정 경기에서 7회 등판해 1이닝 2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했다. 올 시즌 7경기 등판 6이닝 2실점

뉴스스